



@Galerie Patrick Seguin

파트리크 세갱 갤러리의 공간 디자인은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맡았다.

프렌치 모더니즘의 연대기

파트리크 세갱 갤러리

1989년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지역에 문을 연 파트리크 세갱 갤러리(Galerie Patrick Seguin)는 프랑스의 모더니즘을 이끈 디자이너의 흔적을 탐구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장 프루베, 샤를로트 페리앙, 피에르 잔느레, 르코르뷔지에, 장 루아예르(Jean Royère)가 바로 그 대상이다. 파트리크 세갱 갤러리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이들의 오리지널 피스를 수집하고 판매할 뿐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박물관, 갤러리, 페어에서 전시를 진행한다. 과거에 뉴욕 모마(MoMA), 베니스 비엔날레, 디자인 마이애미 등에서 기획전을 선보인 바 있다. 갤러리 대표이자 빈티지 가구 컬렉터인 파트리크 세갱은 장 프루베에게 유난히 애정이 깊었다. 파트리크 세갱 갤러리의 첫 시작 역시 1989년에 연 장 프루베의 단독 전시다. 수십 년간 집요하게 5명의 디자이너를 탐구한 파트리크 세갱 갤러리는 2017년 프랑스 문화 공로 훈장을 받았다. 7월 16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도쿄 현대 미술관(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)에서 장 프루베의 대규모 기획전 <Jean Prouvé: Constructive Imagination>을 진행할 계획이다. 파트리크 세갱 갤러리의 행보를 따라 프랑스의 미드센추리 모던 디자인 세계를 향유해보자.

- 📍 355, Rue des Taillandiers, 75011 Paris, France
- 🕒 오전 9시~오후 7시(토요일 오전 10시~오후 7시, 일요일 휴무)
- 🌐 www.patrickseguin.com

장 프루베가 자신의 집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회전식 벽걸이 조명 포텐스와 스탠드드 체어, EM테이블 등이 있다.



@Galerie Patrick Seguin